

불교, 통일과 세계평화를 선포하다

16일 간화선 무차대회서 통일선언·평화 기원문 발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과정은 ‘참 나’를 찾는 수행의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한국불교가 통일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불교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2015 불교 통일선언문’이 선포됐다. 이와 함께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평화 기원문’도 발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2015 불교 통일 선언’을 대중에게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렸다. ‘2015 불교 통일선언’은 지난해부터 불교의 통일 담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와 성안 작업이 이뤄졌다.

간화선 무차대회에 맞춰 성안된 ‘2015 불교 통일 선언’은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조로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영토가 하나 되는 물리적 통일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명의 통일’과 함께 ‘마음의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견해와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화해와 공존은 가능해지며, 상생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은 마음의 본 바탕인 일심(一心)과 합심(合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합심의 마음문화는 남북갈등, 남북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불국정도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제 불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장대한 통일의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 지혜로운 이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대중은 ‘세계평화 기원문’을 통해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할 것을 서원했다.

대중은 기원문에서 “역사상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세계 종교인들은 이 시대 마지막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지구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 인

2015 불교 통일선언 주요 내용

연 기 |
남·북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연기법은 상호 존중의 실천법.

공존·상생 |
진정한 통일은 마음의 통일, 화해 공존을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탈피.

합 심 |
합심의 마음문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불국정도 통일국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

‘공존·상생·합심’ 통일선언 기조

“마음 통일이 진정한 통일” 강조

자비심으로 통일 여정에 나서자

참석 종교인 채택한 평화 기원문

“수행·기도로 평화 이룩” 의지 담아

교인들은 이 시대 마지막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지구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 인

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원문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세계평화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수행에 힘쓸 것 △종교적 테러 반대하며 종교간 대화에 협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실천 △온 인류가 자비와 사랑의 심성을 개발토록 노력 △지구촌의 고등반은 형제에게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세계평화 기원문’은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열린 세계종교인 평화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19명의 해외 고승과 이웃종교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제 스님은 네팔 지진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며 “자비롭고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종교인들이 뜻을 모아 초종교적인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담아 인류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세계평화기원문을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 이모저모



5월 16일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세계 종교 지도자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를 찾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주고 있다.

“어린 영혼들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할 것”

진제 스님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 세월호 분향소 방문

5월 16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세계 종교 지도자 10여 명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참석에 앞서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했다. 지도자들은 분향소에 헌화한 뒤 합장모예도를 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전명선 세월호 피해자가족대책위원장은 진제 스님에게 “세월호 사태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갔다.

부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이에 진제 스님은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며 “어린 영혼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불자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겠다”고 답했다.

박아름 기자

“전쟁·사고 희생영가, 극락왕생 하소서”

17일 조계사에서 수륙대제... 한국전·세월호·네팔 희생자 위로

한국전쟁과 세월호 참사, 네팔 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은 5월 17일 조계사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행사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 무차대제’를 개최했다.

이날 수륙대제는 관육과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총무원장 인사말, 종정 법어,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패를 안치하는 ‘현화안위’에서는 한국전쟁 참전국뿐 아니라 중국, 세월호, 네팔 희생자 위패를 함께 이운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륙대제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살과 죽음은 한조각의 취모검이며 이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모든 유주무주 영가들이 집착과 원한, 미련을 내려놓고 극락세계에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반도 갈등을 치유하길 바랐다.

자승 스님은 “분단된 한반도의 갈등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다. 오늘 수륙대제는 남과 북을 비롯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영령들을 영원히 고통 없는 열반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서 “더불어 이번 네팔의 지진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희생

진제 스님 “미련놓고 진리를 누리라”

참전국 대사 등 대중 500여 명 참석

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함께 위로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참전국가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로니 엠브레흐트 주한 네팔란드 대사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자리잡길 기원했다.

엠브레흐트 대사는 “네팔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UN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병력을 파견했고 미국 2사단에 배치돼 황성에서



조계종은 5월 17일 조계사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행사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 무차대제’를 개최했다.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결국 전쟁기간 동안 네팔란드 군인 123명이 산화했고, 46명의 한국 군인이 함께 목숨을 잃었다”면서 “네팔란드는 국가기념일인 5월 4일 이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황성 기념비를 세우고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지만 한국에서는 분단이 시작된 시점”이라며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이 시기에 남과

북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륙대제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밀운·부의장 명성·원로의원 원경·해경·총무원장 자승·종회의장 성문·동국대 이사장 일민·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31만명 운집... 한국불교 힘 보여주다

종단협 소속 종단도 동참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교구본사와 수발

사에서 상경한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태고종·천태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들도 대거 동참했다.

대회 주최 측은 스님 1만 명을 포함해 사부대중 31만 명이 동참했다고 최종 집계했다.

신성민 기자

현충원 참배 등 의미있는 행사 ‘다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5월 15일 환영 만찬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요인 중 하나는 해외의 고승과 이웃종교인들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영 만찬에서도 이번 대회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16일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220명의 해외 각국 고승과 이웃종교인들은 서울 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200여 명의 대규모 세계 종교인들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해외 고승 220명은 5월 16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방명록에 ‘남북평화통일 세계평화(南北平和統一 世界平和)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라고 휘호를 남겼다.

신성민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함께 정진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입니다



2015년 부처님 오시날을 한마음 한뜻으로 봉축하며 한국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발원하옵시다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高僧長老團. 世界佛敎考試委員會. 大韓佛敎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敎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